



장성군, 4년 간 '옐로우 프루트 프로젝트' 실시

노란 과일 생산 단지 조성新 브랜드 상품 개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옐로우시티 프로젝트'라는 컬리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장성군이 마케팅 대상을 소득 차별로도 확대해 관심을 끌고 있다.

장성군은 오는 2020년까지 4년 간 '옐로우프루트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옐로우프루트 프로젝트는 시장 경쟁력이 뛰어난 노란 과일을 생산하는 단지를 중심으로 조성해 장성군의 새로운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옐로우프루트 프로젝트는 정부로부터 시장 기능성을 높게 평가 받았다. 지난해 농촌진흥청 공모 사업에 '옐로우프루트 특화단지' 사업을 응모해 5억4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았다. 장성군은 군비 5억4000만원을 더 보태 옐로우프루트를 생산하는 농기를 지원한다.

장성군이 옐로우프루트 과일로 우선 선정한 과일은 황도복숭아, 청포도, 노란사과 3종이다. 세 과일은 모두 전략적인 관점에서 사업 대상으로 선택됐다.

전남에서 세 번째로 재배지가 넓은 복숭아의 경우 총 생산량의 80% 가량을 차돌복숭아가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차돌복숭아의 경우 비슷한 시기에 흥수 출하돼 가격 하락 위험성이 있는 데다 수확기에 장미가 겹쳐 일부 품질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 장성군은 황도복숭아를 압비 재배하고 품종 다양화로 수확철 위험을 분산하고 농가 소득을 올리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에서 재배지가 가장 넓은 포도의 경우 주품종(캡밸얼리)이 최근 3년간 고온장을 입어 전체 농가의 70%에서 미숙과가 발생했다. 장성군은 청포도로 품종을 갱신하면 고온장 해로 인한 척박불량 등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역시 전남에서 가장 넓은 재배지를 지향하는 사과의 경우 재배면적 증가 및 풍작으로 인해 생산 단기가 농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했다. 실제로 평년에 2만5000원선인 사과 가격(5kg 기

준)이 1만5000원선으로 하락했다. 장성군은 노란사과 재배를 통해 혼합상품을 개발하면 사과농가 소득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장성군은 20㏊의 옐로우프루트 단지를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올해 우선 9.3㏊의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장성군은 기존 과일과 옐로우프루트를 융합한 상품을 판매하면 새 부가가치를 창출해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옐로우시티 프로젝트는 2020년 까지 모두 세 단계로 진행되는데, 마지막 3단계가 옐로우 관련 관광 상품과 특산물, 먹거리 개발해 지역소득과 연계하는 '상품화' 단계다. 옐로우프루트 프로젝트는 상품화 단계 사업인 셈이다.

유두서 장성군수는 "옐로우시티 프로젝트는 단순히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는 데서 그치는 사업이 아니다"라면서 "옐로우시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옐로우프루트 사업을 비롯해 주민소득을 늘리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성=반경모 기자

함평군, e-비즈니스 스토어팜 교육 실시

생산·유통·판매·정산까지 농가 스스로 진행



함평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20여 명을 대상으로 3일부터 다

음달 23일까지 e-비즈니스 스토어팜 마스터교육을 실시한다.

농업인대상으로 농산물 판매채널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쉽게 무료로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홍보할 수 있는 상생 플랫폼 madoo(모두)와 상품정보 연동 및 등록, 판매까지 한 번에 관리 가능한 스토어팜 교육을 진행한다.

이학만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모바일 홈페이지와 스토어팜 과정을 마스터하고 생산, 유통, 판매, 정산까지 농가 스스로 진행하는 정보인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정보화 농업인 양성을 위해 모바일 교육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온라인 매출 증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평군은 2016년도 전라남도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에서 스토어팜 우수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고흥군, 농작업 환경개선 위한 편이·안전장비 28대 보급



1억 원)을 지원받아 접종기 등 총 4종 28대를 지원하였다.

앞서 군은 맞춤형 장비 보급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과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장비 선호도 조사 등 사업 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군은 앞으로 농작업 재해예방과 농업인 안전성 향상을 위해 작업별 농작업에 필요한 안전보조구를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과 장비 시연회를 통해 편이장비를 선정하여 농작업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장비를 보완한 후 보급할 계획이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작목별 특성에 맞는 장비 보급으로 해당 농가의 작업능률 향상을 물론 농부 증 예방 등 많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보성군, '일자리 창출 불합리한 생활규제' 공모 신청

오는 20일까지 접수

보성군은 오는 20일까지 '일자리 창출 저해 불합리한 생활규제' 공모 신청을 받는다.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중심 경제성장'에 부합하여 국민이 생활하면서 체험하고 있는 지역기업 경제활동 및 일자리 창출에 장애가 되는 현장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과제를 직접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주요 분야는 ▲기업투자 여건저해 및 무역인프라 구축 애로 ▲청년창업,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영업환경 불편 애기 ▲전통시장 사회적기업, 서비스업 육성 및 영업활동 장애 ▲공공부문 일자리 총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장애 등 국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모든 생활 속 규제가 포함된다.

공모신청은 군민 누구나 가능하며, 보성군 홈페이지 (www.boseong.go.kr)를 통해 제출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 군 규제개혁센터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되고, 접수된 제안은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보성군은 지난 4월 '생활 속의 작은 규제 35건'을 발굴하여 중앙부처 건의와 일자리 창출에 저해가 되는 규제를 관관부서에 법령개선 요구 등 지속적인 관리로 불합리한 생활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성=안구일 기자

신안군, 섬으로 떠나는 여행상품 본격 출시

삼도대교 개통으로 관광시장 새로운 물꼬 터

비금·도초도, 감성자극 섬 여행상품 선보여

섬을 찾아 떠나는 여행객들이 늘면서 신안의 아름다운 섬들이 하나둘씩 주목을 받고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반기문 소식에 신안군은 금호고속과 업무협약을 맺고 하의·신의·비금·도초 섬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하의도'와 CNN이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섬 33선 중 29인 '신의도'가 삼도대교 개통으로 교통이 편리해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비금·도초도'는 드라마 '봄의 왈츠' 촬영지로 유명한 하트해변을 비롯해 내촌마을 돌담길, 이세돌 바

독기념관, 도초 수국공원, 시목해수욕장과 해송숲길, 내월·고단 석장승 등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섬이다.

특히, '세일요트'와 '자전거 여행'을 퍼키지로 구성하여 '신안 명품 섬투어' 상품으로도 선보일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천연의 섬마다 각각의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연계하여 우수한 섬 여행상품으로 관광객을 사로잡겠다"

湖 南 新 聞 전화 062-224-5000
팩스 062-222-5548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무료상담환영"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재제품의 모든 것

광주전남석제품전문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